

인터넷과 중국의 민주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승근 · 이순재

I. 서론

- | | |
|------------------------------------|--------------------------|
| II. 인터넷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 | IV. 인터넷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적 대응 |
| III. '인터넷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의 적실성 검토 | V. 인터넷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 대응 |
-
-

I. 서론

“새로운 세기에 자유는 휴대폰과 케이블 모뎀을 타고 널리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미국을 변화시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개방된 사회입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중국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상상해보십시오. 자! 중국이 인터넷을 통제해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그러한 짓은 젤리과자로 벽에 못질하는 것과 같으니깐요.”

-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2000년 3월 8일)¹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불러온다고 한다. 인터넷이 정보의 획득과 처리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체시켜, 일반 대중들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의 독점으로 유지되었던 국가의 사회 각 부분에 대한 통제력 또한 약화되고, 대중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와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공론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² 이러한 견해는 중국에도 적용되어, 중국 내에 인터넷이 점

1 Drake, Kalathil and Boas(2000); Lokman Tsui(2001), p. 6.

2 임혁백(2000), p. 34.

점 확산되어 나갈수록 권위주의적인 중국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 결과 민주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³

그러나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확산에 있어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virtual) 공간이 현실(non-virtual)세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⁴ 다시 말해, 인터넷이 물리적 실체인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며 이들 인터넷 이용자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적, 제도적 동인에 속해 있는 이상,⁵ 현실 세계의 정치적 역동성과 상호작용이라는 환경적 요인의 고려 없이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또 무의미하다. 따라서 1949년 건립된 이후 미디어는 물론 사회·경제·정치적 전 분야에 걸쳐 강한 통제를 유지해 온 중국정부를 감안할 때, 인터넷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민주화를 가져온다고 낙관하는 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조직화하며, 때로는 정부의 통제망을 피해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한 사례들만을 인용하면서, 결국엔 중국정부도 이러한 활동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⁶ 그러므로 인터넷의 확산이 중국의 민주화에 미칠 수 있는 유형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인터넷⁷을 단일한 변수로 놓고 중국정치를 연구한 것은 유재섭이 유일하다. 그러나 유재섭은 인터넷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분석하기

3 Thomas Friedman(2000), pp. 62-70.

4 Jack Linchuan Qiu(1999/2000), p. 2.

5 Martin Wolf(2001), p. 190.

6 Drake, Kalathil and Boas(2000).

7 Deibert은 국제정치연구에 있어서 “깊이”보다는 “넓이”의 이점을 가진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하이퍼텍스트(hyperlinks)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하이퍼텍스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막연한 서핑을 통해 발생하는 시간낭비를 방지해 주어야 하며, 단순히 내용의 모방 게재가 아닌 좀더 구체적인 ‘문제영역’(Issue-Area)을 다루는 학술정보사이트가 필요하고,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 운영자의 신상과 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Ronald J. Deibert(1998), pp. 211-221; 한편 정재호는 중국정치연구에 있어 영문, 중문, 그리고 국문으로 된 인터넷 사이트들의 학술적 유용성에 대한 시론적 평가를 시도한 바 있다. 정재호(2000), pp. 441-465.

보다는 단지 중국정부의 정보화 발전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⁸ 말미에 중국정부의 하부로의 권력이양과 인터넷이 확산이 맞물려 중국사회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⁹ 정재호는 중국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法輪功의 활동에 주로 초점을 두면서, 이들의 활동에 있어 인터넷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중국정부가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맞서고 있다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¹⁰ 하지만 그는 중국정부의 인터넷 규제조치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¹ 김영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국의 비공식 노동조직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국·내외에 여론화시키는데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¹² 그 또한 인터넷의 규제조치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중국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¹³ 정해용과 박재욱은 上海市의 도시정치 사례를 통해 지방 수준의 민주화 가능성을 설명하면서,¹⁴ 인터넷을 통해 국가와 시민간의 쌍방향적 의사전달이 확대되고 있어 도시정치의 민주화에 인터넷이 일정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¹⁵ 이동률은 중국정부가 대외관계에 있어 민족주의를 실리에 부합되는 도구로서 관리 및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¹⁶ 현재 인터넷이 중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대중 민족주의가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¹⁷ 종합해 볼 때, 인터넷과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세밀하게 검토한 연구물은 아직 국내에 없다. 게다가 중

8 유재섭(1999), pp. 89-105.

9 유재섭(1999), p. 105.

10 정재호(2001), pp. 304-311.

11 정재호(2001), p. 311.

12 김영진(2000), pp. 247-250.

13 김영진(2000), p. 249. 그러나 왜 그러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4 정해용·박재욱(2001), pp. 254-260.

15 정해용·박재욱(2001), p. 259.

16 이동률(2001), pp. 261-274.

17 이동률(2001), p. 265.

국정부의 인터넷 통제 부분을 언급한 것은 유재섭, 정재호, 김영진이지만 이들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정책을 일반적으로 소개하거나,法輪功과 비공식 노동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사례들만을 열거하는 제한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의 확산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을 전제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터넷이 중국체제의 민주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의 적실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칼라쉴(Shanthil Kalathil)과 보아스(Taylor C. Boas)가 그들의 연구물에서 제시한 대중, 시민사회조직, 경제, 국제사회라는 4개의 분석 틀을 중심으로,¹⁸ 인터넷이 권위주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관측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경험적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인터넷이 민주화를 용이하게 한다는 2장의 내용에 반하는 사례들을 거론할 것이다. 즉 인터넷의 확산이 민주화에 장애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인 중국정부의 통치에 필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현황과 인터넷 사용실태가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인터넷이 야기하는 변화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우선 4장에서는 중국정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억제하는 다양한 통제정책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인터넷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 및 경제적 성장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인터넷의 확산이 중국정부의 민주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평가할 것이다. 앞서 밝혔듯 본 주제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물은 아직 국내에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은 주로 미국, 독일 등에서 연구된 영문 자료와 온라인 상에 개재된 국내 주요 일간지의 기사 등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그리고 논의의 초점은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에 두고자 한다.

II. 인터넷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

우선 인터넷이 대중(mass public)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우, 동유럽 붕괴에 텔레비

18 Kalathil and Boas(2001), pp. 2-3.

전 방송이 미친 영향인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가 거론된다.¹⁹ 즉 대중들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외국의 다양한 뉴스와 사상들(ideas)이나 민주화된 나라들의 문화나 정치적 규범에 관한 정보들이 대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통제에 대한 반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중들이 이메일, 인터넷 대화방(chat rooms)과 인터넷 게시판(bulletin boards)을 통해 과거에는 전국적 단위에서 거론하기 불가능했던 정치·사회에 관한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대중들의 “사상적 다원화”(ideational pluralism)와 점진적인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예컨대, 인터넷 게시판에 2001년 3월 江西省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 폭발 사고를 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빗발치자 朱鎔基 총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직접 사과를 표명한 일이 있었다.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일은 분명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인터넷 게시판이 분명 증대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²¹

중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시민사회조직들의 인터넷 사용 또한 중국정부에 대한

19 헌팅턴은 ‘전시효과’를 ①한 사회의 집단과 지도자들이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적인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 ②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③민주화의 후발주자가 전자의 사례를 통해 유의해야 할 과제들을 다른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민주화를 전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Samuel P. Huntington(1991), pp. 100-101.

20 Kalathil and Boas(2001), pp. 2-3.

21 Lokman Tsui(2001), p. 6; 이 사건은 92년부터 중국정부가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줄여감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대체 수입을 찾아 나서게 된 상황에서, 폭죽제조를 통해 학교재정을 충당하고 있던 학교에서 그 폭죽의 폭발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것에 있었다. 즉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실에서 폭약을 제조하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신량망 (/sina.com) 등 중국의 인터넷 매체를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이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열악한 중국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질타하게 되었다. 그러나 朱鎔基 총리는 사건 이를 뒤인 8일“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돈벌이를 위한 폭죽 만들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고, 이날 관영 신화통신이 “한 정신병자가 이웃에 불만을 품고 대량의 폭약을 학교에서 터뜨린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었던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국익을 감안하여 뉴스를 적당히 ‘손보기’ 전에, 현지발 보도가 인터넷을 타고 먼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거짓말이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디지털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2001/3/7), (2001/3/14), 『The New York Times On The Web(<http://www.nytimes.com>)』 (2001/3/16).

잠재적인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조직들이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조직의 구성과 관리, 그리고 선전을 통한 새로운 회원의 확충 등의 제반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데에 기인한다.²² 한 예로, 신설된 지 얼마 안된 중국 민주당은 1998년 회원의 신속한 동원과 형성에 있어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²³ 특히 1996년 봉건적 미신으로 규정되어 공식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法輪功 신도 10,000 여명이 1999년 4월 공안당국의 감시를 뚫고 중국 당정 지도부의 숙소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中南海 외곽에서 시위를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조직을 관리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준다.²⁴

시민사회조직들은 정치적인 추문들(political scandals)을 온라인 상에 유포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거나 정치적 개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음성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직은 노동문제를 여론화시키기 위해 전자잡지(online magazine)를 사용하고 있다. 1989년 최초로 등장한 CND, 중국정부의 정보봉쇄와 언론탄압을 타파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며 여러 문제들에 대한 체제비판자들의 평론을 싣고 있는 '隧洞(Tunnel),'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전달하는 '大参考'(VIP Reference),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일간 형식으로 전달하는 '小参考' 등이 그것이다.²⁵

인터넷이 주도하는 경제 영역의 확대 또한 경제와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국가 통제에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문맹률이 상당히 낮은 거대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하청업자'가 될 수 있고,²⁶ 이로 인해 정치적 자유화를 열망하는 중산층의 등장이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일반적으로 선진국, 특히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 급속하게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패나 불공정한 관행을 비판하고, 중국정부에게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와 투명성 증대를 위한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산업의 확산은 실질적인 경제적 민주화를

22 윤영민(2000), p. 45.

23 Kalathil and Boas(2001), pp. 6-7.

24 정재호(2001), pp. 297-300, 304-305.

25 Lokman Tsui(2001), p. 35; Thomas Friedman(2000), pp. 68-69; Kalathil and Boas(2001), pp. 6-7; 김영진(2000), pp. 247-248.

26 Peter Nolan(2001), pp. 339-340.

가져오는 동시에, 대외적인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자국 국민들을 외부의 영향과 사상으로 부터 고립시키려던 중국정부 내 강경파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²⁷

과거부터 외국 정부와 다국적 기구들이 행하는 국제사회차원에서의 압력과 제재는 권위주의 정권을 민주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무는 인터넷의 사용으로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손쉬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단체들을 더욱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내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Human Rights in China(中國人權), 홍콩에 있는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소식센터(中國人權民運信息中心)와 중국노동권리(Labour Rights in China) 등이 중국의 민간인 체포와 인권 침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온라인 상에서 청원서를 돌리면서, 중국의 반정부 인사들이나 국외의 인사들과도 이메일을 유지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²⁸ 게다가 세계 40여 개국에 산재해 있는法輪功 국제 지부는 인터넷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위한 반정부 저항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확실히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더욱 왕성해진 국제사회의 관심은 경제·정치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중국정부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동시에 중국정부가 타국과의 원만한 외교적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²⁹

27 Peter Nolan(2001), pp. 331-335.

28 Kalathil and Boas(2001), p. 7; 김영진(2000), pp 249-250.

29 Kalathil and Boas(2001), pp. 7-8; 한국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던 쉬저롱 박사가 중국 정부 기밀문서의 외부반출과 국가안보를 저해한 혐의로 2000년 6월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쉬박사의 모교인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세계 각국의 교수, 공무원, 사업가, 언론인 등 340명이 작성한 항의서한을江澤民主석에게 보냈다. (국민일보(<http://www.kukminilbo.co.kr/>)) (2002/2/21); 중국의 黑龍江省 大慶과 遼寧省의 해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위를 벌인 사실을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정보센터가 즉각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벨기에에 있는 세계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중단을 촉구하는서한을 江澤民主석에게 보냈다. 『국민일보(<http://www.kukminilbo.co.kr/>)) (2002/3/19); 미국은 1990년 이후 유엔인권회에 중국에 대한 인권비난 결의안을 상정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민간인이 중국의 기독교 교회에 성경을 반입하려다 체포된 사건에 대한 우려 표명을 비롯해 중국의法輪功탄압 등을 외교적 쟁점으로 삼고 있다. 독일의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도 제 58차 유엔인권회 연설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각각 『한국닷컴(<http://www.hankooki.com/>)) (2001/4/24),

Ⅲ. ‘인터넷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의 적실성 검토

이 장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앞의 논의와는 달리 인터넷의 확산이 중국정부에 필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표 1>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현황과 인터넷 사용 실태 (단위; %)

총 사용자	4,580만 명			
사용자	18세 이하	18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16.3	54.1	18.8	10.8
학력수준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대학	석·박사
	11.5	30.5	55.5	2.5
직업별	학생	사무직	전문기술자	공직자와 교사
	26.2	25.2	17.5	11.5
접속장소	가정	직장	학교	인터넷 카페
	62.1	43.3	21.8	17.3
사용목적	정보획득	게임 및 오락	親交	학습
	47.6	18.9	14.9	6.6
자주 이용하는 기능	이메일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게시판 및
	92.9	63.8	51.0	18.6

주: 본고의 논의에 맞게 자료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했음.

자료: “제10차 인터넷 發展狀況(2002. 7)”, 中國 인터넷 情報센터(CNNIC)

(<http://www.cnnic.net.cn/develst/2002-7e/5.shtml>).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이 인터넷 사용자수는 전체인구의 3.5%에 해당하는 4,580만 명이고, 주요 사용자 층은 18세에서 30세 이상의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이다. 직업별로는 학생, 사무직, 전문기술자, 공직자와 교사 순이며, 인터넷 접속장소는 가정, 직장, 학교, 인터넷 카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주로 정보획득이나 오락, 그리고 채팅을 통한 親交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기능도 이메일이나 검색엔진, 소프트웨

『국민일보(<http://www.kukminilbo.co.kr/>)』 (2002/1/8), 『세계일보(<http://www.segyetimes.co.kr/>)』 (2001/8/22), 『중앙일보(<http://www Joins.com/>)』 (2002/3/22).

어의 다운로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합해보건 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이들이 주요 인터넷 사용자들이나, 이들은 인터넷을 주로 개인의 효용증대와 같은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전국적 단위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포럼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98년 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武漢, 上海, 北京, 河北, 廣州, 심천 등에 소재한 7개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의 내용을 매일 평균 1시간씩 접속하여 검토하고, 게시판 관리자들과 직접 인터뷰(1998년 6월)를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 Jack Linchuan Qiu에 따르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내용이라고 개재된 것들도 그 실상은 주로 경제, 연예, 스포츠 등의 비정치적인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³⁰

또한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인터넷 접속 사용자(전 인구의 3.5%)는 다수 대중이라고 하기엔 극히 적다. 물론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고 해도,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상적 다원화'와 '민주화 욕구의 증대'를 가져올 인터넷 내용물들은 영어로 돼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에 쉽게 접근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³¹

한편 포르노그래피나 만화를 보고 오락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인터넷 중독증'이 중국의 급속한 인터넷 확산과 함께 사회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이 '인터넷 중독증'은 건전한 가치체계나 인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권의 통치 속성이 권위주의적인가 민주주의적 인가와는 상관없이, 중국 사회의 안정을 해칠 사회적 병폐로 남을 것이다.³²

인터넷을 통한 시민사회조직의 왕성한 활동이 민주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중국사회 내부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사회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사회내의 실상은 그러한 전제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개혁개방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활동적인 산업협회 형식의 경제단체와 학술단체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함으로써 국가로부터

30 Jack Linchuan Qiu(1999/2000), p. 5; pp. 9-10.

31 Kalathil and Boas(2001), p. 16.

32 Peter Nolan(2001), pp. 355-356.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로 1989년 10월 13일 ‘사회단체 등기관리 조례’를 반포함으로써, 정부의 일정 지침에 위반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령하고 있다.³³ 그리고 지난 1998년 6월 ‘중국민주당’창당을 준비하던 이들은 전격 체포돼, 국가전복 기도 죄로 중형을 선고받았고,³⁴ 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李鵬은 “만약 중국에서 다당제를 시도하고 공산당의 지도력을 부인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³⁵

최근 외신에 의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하강노동자 중심의 빈번한 대규모 시위도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해 비공식 노동조직이나 이들의 노동운동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일회적일 뿐이다.³⁶ 게다가 비조직 노동조직의 운동 목표는 조직적인 저항을 통해 공산당의 통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자체적인 정당을 조직하여 기존 공산당의 정치원리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³⁷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法輪功과 관련해서, 중국정부는 1999년 7월 이후 모두 10만 명 이상의 法輪功 신도들을 체포 구금했다. 그리고 文革 이후 최대규모의 전국적인 수색 활동을 펴 法輪功과 관련된 서적, 음반, 비디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하는 한편 민주화 운동인사(民運分子)들과 法輪功과의 연계를 막기 위해 청화대학과 북경대학 등에서는 法輪功을 수련하는 학생들을 색출하여 퇴학시키거나 정학시키기도 했다.³⁸ 더 나아가 중국정부가 취하는 法輪功 관련 사이트들의 삭제와 국외 사이트의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터넷 통제 조치로 인해, 현재 해외 法輪功 신자들은 본토의 신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조차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

33 정해용·박재욱(2001), pp. 255-256.

34 徐文立, 王有才, 秦永敏 등이 浙江省 民政局에 ‘중국민주당’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이들은 국가전복기도죄로 각각 징역 13년, 11년, 12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국i닷컴(<http://www.hankooki.com/>)』 (1998/6/26), 『디지털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1998/12/23).

35 『경향신문(<http://www.khan.co.kr/>)』 (1998/12/2).

36 김영진(2000), pp. 250-251.

37 김영진(2000), p. 241, 243.

38 정재호(2001), pp. 297-305.

다.³⁹

인터넷이 주도하는 경제 영역의 확대가 중국정부에게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는 마치 경제와 정치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과 흡사하다. 세계 각국이 인터넷 구축의 초기단계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한 것처럼,⁴⁰ 최근 중국의 인터넷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른 '위로부터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00년 北京에서 개최된 '제16회 세계컴퓨터대회'(World Computer Congress) 개막식에서 江澤民 국가주석이 "현재 세계경제에는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참하기 위해 IT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인터넷 산업에서의 성공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컨텐츠 제공 서비스·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산업 전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정부와의⁴¹ 관계 설정 자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² 그러므로 중국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얻어내고, 수익관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눈 밖에 나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는 동시에 중국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⁴³

39 Kalathil and Boas(2001), p. 7.

40 Anthony Giddens(1999), p. 72.

41

『임수근 중국인터넷비즈니스백과사전(http://www.ssoft.co.kr/ChinaInternet/ChinaInternet1_2.htm)』 .

42 서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중국적 특색이 있는 인터넷(the Interne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것은 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라는 개념에 빗대어 풍자한 어구로 중국 인터넷 산업이 시장경제의 원리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Business Week』 (2000/7/17), 『임수근 중국인터넷비즈니스백과사전(http://www.ssoft.co.kr/ChinaInternet/ChinaInternet1_2.htm)』 에서 재인용.

43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자국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예컨대, 홍콩과 유럽에서 대만의 재무장관이 참가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주최한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CDFB의 중국 내 영업을 제한하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건체이스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열려던 대만 투자유치설명회 계획을 잇달아

그리고 중국정부는 신생하고 있는 기업가 집단과 중산층 계급을 그들 내부로 수용함으로써 경제적 자유화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⁴⁴ 이번 8일부터 열린 중국공산당의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黨章에 江澤民 주석의 ‘3개 대표론’⁴⁵이 삽입되면, 전대 대표 2100여명 가운데 이른바 ‘신흥계급’에 해당하는 7명의 중국 갑부들이 포함될 것이고,⁴⁶ 이들이 1억 중산층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⁴⁷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종식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압력이 중국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⁴⁸ 비록 노동운동에 한정된 사례이긴 하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민주화운동과 연관될 수 있는 조직적인 노동운동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중국정부가 개별 노동운동가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차단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국내와 국외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와 정부가 후원하는 웹사이트에 국제사회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정보를 실거나 자국의 선전운동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⁵⁰

그리고 1999년 유고 벨그라드 소재의 중국 대사관의 피폭사고와 2001년 海南島에서 미·중 군용기 충돌사고가 있었을 때, 중국인들은 중국 내 주요 사이트에 ‘反美’를 외치는 글들을 무수히 올렸는데 이는 민족주의적 감정 또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⁵¹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인터넷을 통한 국제 커뮤니티의 구성이 인권보호, 종교의 자유 보장, 민주화 운동지지 등

취소했다. 『동아닷컴(<http://www.donga.com>)』 (2001/9/4).

44 Kalathil and Boas(2001), p. 7.

45 ‘선진 생산력과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은 중국공산당이 서구 의회민주제나 다당제 및 삼권분립론에 입각한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현재 중국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다원적 이익을 수렴하고, 다양한 계층·이익집단간의 대립과 충돌을 완화함으로써 현재의 공산당 일당체제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두복(2000), pp. 39-49.

46 『대한매일(<http://www.kdaily.com/news/>)』 (2002/11/8).

47 『디지를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2002/11/04).

48 Drake, Kalathil and Boas(2000); Kalathil and Boas(2001), p. 16.

49 김영진(2000). p. 251.

50 Kalathil and Boas(2001), p. 7.

51 『대한매일(<http://www.kdaily.com/news/>)』 (2001/4/6), 『한국닷컴(<http://www.hankooki.com/>)』 (2001/5/2).

과 관련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미·중 군용기 충돌사고가 있은 후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친중파 해커(Hackivist)와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으로 구성된 친미파 해커(Hackivist)간에 서로 미국과 중국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⁵²

결국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주로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정부는 정보접근의 불평등이 야기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⁵³의 문제를 고민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효용증대와 같은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이용은 항상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터넷 중독증’과 공격적 민족주의의 대외적 표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확산이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중국정부의 통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경험적 사례가 뒷받침된 ‘객관적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에 지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IV. 인터넷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적 대응

이 장에서는 인터넷이 야기하는 체제 불안정 요소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대응유형은 법에 의한 통제, 기술적인 통제, 온라인 상에

52 기존의 사이버 테러가 해커(Hacker)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위의 사례는 집단적 공세로 행해졌는데, 이러한 경우는 해커(Hackivis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디지털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2001/5/3).

53 강지영(2002), pp. 26-34; 이현우(2001), p. 380; 정연정(2000), p. 354; 임혁백(2000), p. 191.

서의 직접통제, 그리고 인트라넷구축을 통한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에 의한 통제가 있다. 1994년 중국국무원 147호령으로 공포된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인터넷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처음 시작된 이후⁵⁴ 1997년에 시행된 ‘임시규제법규’를 통해 중국정부는 외국의 서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전송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⁵⁵ 그리고 그 해 12월 ‘컴퓨터통신망 국제연락망 안전보호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인터넷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⁵⁶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보다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1999년 法輪功 사건을 통해서이다. 이후 중국정부는 “외교사절을 제외한 모든 국내 및 외국의 기관과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기술(encryption technologies)이 장착되어진 모든 기구와 장치에 대한 정보를 2000년 1월말까지(즉 3개월 안에) 중국 정부에 등록하고 그 사용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공지하였다.⁵⁷

한편 인터넷사용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바람직하지 않은 외부의 정보들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또 국가의 기밀들이 밖으로 누설되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소통에 대하여 더욱더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게 된다. ‘국가기밀’의 유출행위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도 있는 중한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인터넷에 중국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콘텐츠제공업체들(ICPs)로 하여금 반드시 정부유관단위의 사전검열을 취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기제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 노력해왔으며 2000년 한 해 동안 발표한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규정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중국정부는 모든 웹사이트들로 하여금 信息産業府에 의해 운영되는 통신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이는 모든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국가 통신망을 경유하여 이뤄지도록 한 후 공안부와 국가안전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말한 97년의 ‘임시규제법규’와 이 규정의 큰 차이점은 정부에게 통신망에 대한 장악뿐만 아니라 인터넷콘텐츠의 내용까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무원은 그 산하에 새로운 단위를 설치하여 인터넷상에 올려지는 소식과 정보를 검색 및 조사하도록 하

54 유재섭(1999), pp. 99-100.

55 Lokman Tsui(2001), p. 25.

56 김영진(2000), p. 249.

57 정재호(2001), p. 306; Lokman Tusi(2001), p. 29.

고 있다. 이러한 감시조직은 성급단위조직에까지 설치되어 인터넷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터넷통제의 정도는 2000년 말에 가장 광범위해지고 강력해진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된 이 규정은 우선 정부의 통신체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체제불안정 및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상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사교집단과 관련된 인터넷의 사용금지조항이 처음으로 삽입되었는데 이는 法輪功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이 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전복을 꾀하거나 국가의 체제안정을 해치는 부정적 내용이 인터넷에 올려지는 것을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다.⁵⁸ 이를 위해서 이 새로운 규정은 인터넷서비스 콘텐츠제공자와 공히 모든 사이트에 올려지는 내용을 무조건 60일간 보존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경찰과 공안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즉각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⁵⁹ 또한 모든 정보통신관련기업들의 지분을 국가가 최소한 51퍼센트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언론매체의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인터넷용 뉴스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언론매체가 제작한 뉴스만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⁶⁰ 이렇듯 중국정부의 인터넷통제정책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안(試案)적인 성격의 규제방침에서 시작하여 이의 적용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현실상황에 대응하면서 체계적인 정책이나 법률로 발전되는 형태를 취한다. 인터넷 초기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규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⁶¹

그러나 규제의 내용이 아무리 세밀하다 할지라도 어느 사회에서나 법 적용의 ‘공백상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사이버 상의 통제에 있어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 그 이유는 바로 법 개념의 모호성에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곧 법 해석의 자의성으로 연결되는 바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인터넷이 초래하는 정치적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⁶²

⁵⁸ 정재호(2001), p. 307.

⁵⁹ Lokeman Tsui(2001), p. 27.

⁶⁰ 정재호(2001), p. 308.

⁶¹ 유재섭(1999), p. 93.

⁶² Nina Hachigian(2001), p. 123.

모호한 법 개념에 대한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기업들은 보통 인터넷 상에 ‘안전한’ 콘텐츠를 올림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 한다. 법조항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희생자가 됨으로써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던 개인은 1998년 ‘국가권력선동죄’로 체포된 林海이다. 그는 미국에 근거를 둔 ‘大參考’(VIP Reference) 같은 전자뉴스레터에 30,000여명의 중국인 주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⁶³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행하는 자율규제(Self-censorship)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인터넷통제를 더욱 쉽게 만든다.⁶⁴ 따라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부적절한’ 내용의 게재로 인해서 중국정부에게 사업을 취소 당하거나 정부의 협조를 얻는 게 어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만들어놓은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⁶⁵

둘째, 기술에 의한 통제가 있다. 기술적인 통제는 정부가 정보인프라를 장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중국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분야는 직접 국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직접 연결망(IN)을 운영하는 NSP 분야와 직접 연결망을 통해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접속망(AN)을 운영하는 ISP 분야로 구별된다. 즉,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려면 AN은 IN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⁶⁶ 전산망의 중추(backbone)라 할 수 있는 공용 NSP는 물론, 상용 NSP 분야도 信息产业部 산하의 4개 국유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ISP 시장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한하는 별도의 장벽을 설치해 놓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장해 요인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600여 개 ISP들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도 대부분 각 지방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기관 산하의 국유기업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인터

63 Thomas Friedman(2000), pp. 68-69; 김영진(2000), p. 249; 하지만 그는 전자분야의 기술자로서 단지 금전적 대가만을 바라고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것 뿐 이라고 한다. Lokeman Tsui(2001), p. 30.

64 2002년 3월 16일 중국 인터넷 사업에 대한 자율 규제에 관한 공공 서약이라는 운동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포털이 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야후 등 서약에 서명한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정보를 생산, 게재, 유포해서는 안되며, 법을 저촉하고 미신과 음란성을 확산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 등도 금지된다. 또한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삭제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서 추방된다. 서명한 포털들은 이와 함께 외국에 기반한 웹사이트의 내용까지 검색해 불특정한 유해 정보들을 차단해야 한다. (<http://webnews.lycos.co.kr/detail.asp?no=17224>).

65 Nina Hachigian(2001), p. 123

66 Lokeman Tsui(2001), p. 26.

넷 접속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영향력은 한마디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위와 같은 국가 네트워크 망에 대한 통제 외에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통제도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제의 방법은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콘텐츠에 제한을 가하는 필터링(filtering)인데 이러한 필터링은 '내용차단'(Negative)필터링과 '선택적수용'(Positive)필터링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차단' 필터링은 주로 '블랙리스트'(Black list)작성을 통해 정부가 일반인들의 웹사이트 내용이나 이용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선택적수용' 필터링을 통해 정부는 의도적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다른 콘텐츠에는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주로 필터링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콘텐츠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 실시간(real-time)으로 수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방'(chat-rooms)은 엄청난 정보의 양과 정보의 즉각적인 성질로 인해 중국정부가 가장 규제하기 힘든 대상일 수 있다. 때문에 대화방에 대해 통제를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15분 안에 인터넷상에 게재된 '루머'를 찾아낼 수 있는 '사이버추적(Cybersleuthing)'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감으로써 많은 부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이용자들은 프록시(proxy)서버나 '무명자(Anonymizer)' 같은 신분 노출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부의 통제를 피하고자해도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부족과 적지 않은 비용, 그리고 위조(fake) 프록시를 설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들을 감시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인해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이다.⁶⁸ 다른 한편으로 암호화(encryption)를 통해 정부의 추적을 피하면서 개개인 간의 '은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과 일반인들이 암호화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암호화의 한계라 하겠다. 한편 중국은 뒤쳐진 소프트웨어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만회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주최한 Security 2000 박람회는 이를 잘 보여준다⁶⁹. 물론 소프트웨어는 독재정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는 것

⁶⁷임수근중국인터넷비즈니스백과사전(http://www.ssoft.co.kr/ChinaInternet/ChinaInternet1_3.htm)」.

⁶⁸ 유재섭(1999), p. 103; Lokeman Tsui(2001), pp. 33-34

⁶⁹ Lokeman Tsui. p. 103.

이 아니라 주로 종업원들이 포르노사이트 같은 부적절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감시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개발된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시장이 개방되어감에 따라 중국은 자기들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미국을 비롯한 서구로부터 인터넷통제의 기술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⁷⁰

한편 중국정부는 2001년 3월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Internet Police 110'을 자체 개발하였다. 긴급경찰전화번호를 의미하는 'Internet Police 110'은 '사교, 섹스, 폭력'등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는 전송된 데이터의 패킷을 모니터 할 수 있고 콘텐츠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막을 것인지의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⁷¹

셋째, 온라인 상에서의 직접 통제가 있다. 이 방법은 인터넷이용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인데, 온라인상의 뉴스포럼, BBS(Bulletin Boarding System) 등 인터넷 상의 '대화장소'가 주된 감시의 대상이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을 감독하기 위해서 필터링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 외에, 모든 인터넷 대화방에는 그 진행을 운영하는 중재자가 있다. 'Big mama'라 불리는 이들은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거나 토론주제를 벗어나는 메시지들을 삭제하는 임무를 지는데, 대화진행 중 토론의 정도가 벗어난 것 같다고 생각되면, 여기에 개입하여 '질서 있고 이성적인 토론'을 참여자들에게 요구한다.⁷² 온라인 상에서 이와 같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인터넷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재를 받게 된다. 대개 인터넷상에 올린 메시지내용이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인터넷이용이 금지되며,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이용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⁷³ 한편 'Big mama'를 포함한 온라인 상의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돌아간다. 처벌의 유형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네트워크가 잠정적으로

⁷⁰ 중국정부는 얼마 전(기간: 2002.10.28-10.31) 公安府주최로 "Security China"를 개최하였다. 개최기간동안에 정보보호, 경찰업무수행을 위한 도구, 보안프로그램등이 전시되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박람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웹사이트는중국어(<http://www.securitychina.com.cn/index.htm>)뿐만아니라 영문(<http://www.securitychina.com.cn/english%20exhi/sz.htm>)으로도 되어있다

⁷¹ Lokeman Tsui(2001), p. 43.

⁷² Lokeman Tsui(2001), pp. 39-40.

⁷³ Jack Linchuan Qiu(1999/2000), pp. 18-25.

폐쇄거나 심할 때는 인터넷사이트운영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열렬하게 정치적인 토론이 벌어졌던 북경대의 未名이라는 BBS가 1996년 이후 거의 삼 년 동안 폐쇄조치 당한 사건을 들 수 있다.⁷⁴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의 직접규제는 정부가 지정하거나 인터넷사이트운영자가 고용한 중재자들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개인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부는 인터넷통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정부는 국가 내에서만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전국적인 인트라넷(Intranet)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트라넷은 정부만이 허가한 콘텐츠만을 가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⁷⁵ 인트라넷을 통해 중국정부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부합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차원에서 진행되는 인터넷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계획이 아직 논의 중이고 수년 동안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지만, 최근 국가적 우선순위로써 다시 부활한 것은 중국정부가 외국 사상의 침투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和平演變’을 인터넷이 초래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 法輪功의 인터넷에 대한 깊은 의존, 그리고 法輪功에 대한 ‘불순한 외국세력의 지원’등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 소위 ‘윈텔리즘’(Wintelism)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윈텔리즘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운영체제란 곧 정부가 독점적으로 그 정보의 소통을 감시 및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국정부는 1999년부터 리눅스(LINUX)시스템의 개발과 보급 및 홍보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자신만의 기술로 중국전용 정보고속도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씨넷(C-net)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개발만 되면 속도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 외부개입에 대한 우려 없이 중국정부만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경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⁷⁶

⁷⁴ Lokman Tsui(2001), p. 40.

⁷⁵ Lokeman Tsui(2001), pp.31-32.

⁷⁶ 정재호(2001), p. 308: 한편 중국정부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도 마련중이며, 인민해방군에서도 ‘정보식민주의’의 출현을 우려하면서 군대가 국가주권과 영토뿐만 아니라 정보영토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새로운 임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月刊 아태지역동향』(2000, 3), p. 19.

V. 인터넷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 대응

중국정부는 인터넷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해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e-government)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1999년에 시작된 "Government Online" 프로젝트의 일차적 목표로서 이 계획을 통해 중국은 이전의 紅頭文件이나 內參의 형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관리들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갖도록 함으로써 의사전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나 지연을 줄여나가려고 한다. 행정절차의 적실성 있는 통보와 정확한 내용의 고지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수의 부서와 관료기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의 문서들을 올려놓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통치 과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기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은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 온라인 상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는 중국 인민 대검찰청(Supreme People's Procuratorate)에서 운영하는 'Disclosure E-Mail-Box'이다.⁷⁷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쌍방의 의사소통은 중앙, 지방정부의 長들과 그 지역민들 사이에도 적용되는데 지역의 長은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제안이나 불만을 읽어보고 참조함으로써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게 된다. 한 예로 2000년 2월에 개최된 上海市 人大 제 11기 3차 회의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200여건의 메일이 접수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浦東비행장의 교통문제, 버스중점의 소음과 환경문제, 시민생활의 카드단일화 문제 등 일상적 생활세계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들이었고, 浦東 내 어느 지역의 상수관 문제는 접수 당일 곧바로 해결되기도 한 것을 들 수 있다.⁷⁸ 그리고 중국의 국가 평의회(State Council)와 信息産業部는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계약을 수주함에 있어 관리들이 뇌물을 상납 받는 행위들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경매를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부입

⁷⁷ Junhua Zhang(2001), p. 7.

⁷⁸ 정해용·박재욱(2001), p. 258.

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합리적으로 소비되었던 국가예산을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의 조치들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시켜주고 근대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⁷⁹

한편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에도 인터넷기술이 주도하는 하이테크 산업지대를 형성하려고 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지대는 국내 인터넷 창업분위기를 배양하고, 토착적인 특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내의 일류대학 졸업자들이 외국의 이익이 큰 직장을 찾아 떠나는 것보다 국내에 머물러, 기술 분야에서 일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적 근대화에 기여할 기술에 정통한 인구를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야심과 결합된 전략인 것이다.⁸⁰

또한 중국정부는 정부의 이미지고양을 위한 선전 도구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11월 8일 개막되는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기관지 人民日報가 인터넷사이트 상에 3층 양옥 건물이 즐비한 마을 전경을 띄워 놓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 허덕이던 마을이 현재는 1인당 소득 60만 위안의 富村이 되었다는 것을 ‘특집’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⁸¹ 이것은 중국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 현 중국공산당 일당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부의 이념을 선전하고,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法輪功이 邪教임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⁸²

VI. 결 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이 가지는 속성 자체가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지도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인터넷이 결코 다른 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인터넷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사회적

⁷⁹ Junhua Zhang(2001), p. 7; Kalathil and Boas(2001), pp. 8-9; Nina Hachigian(2001), pp. 126-127.

⁸⁰ Kalathil and Boas(2001), pp. 8-9; 『Business Week』 (2002/10/28).

⁸¹ 『디지털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2002/11/04)

⁸² 중국 사회과학원이 개설(2000. 5.10)한 「邪教揭評」제하의 인터넷 웹사이트(www.cas.net)에서는 邪教조직의 실상을 홍보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은 ①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인생관·가치관 교육 讀本, ②唯物論·無神論 讀本, ③法輪功 실상 해부, ④세계 邪教집단에 대한 이해, ⑤세계 7대 邪教 등에 관한 것들이다. 『국가정보원(<http://www.nis.go.kr/>)』 .

제도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이상, 인터넷의 정치력 영향력은 그것이 존립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의 확산이 필연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중국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주로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정부는 정보접근의 불평등이 야기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를 고민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효용증대와 같은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이용은 항상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터넷 중독증’과 공격적 민족주의의 대외적 표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법, 기술적 구조, 온라인 상의 감시, 그리고 정부가 허가한 콘텐츠만을 접속하게 하는 인트라넷구축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통제조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성장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이미지를 제고를 위한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확산이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중국정부의 통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경험적 사례가 뒷받침된 ‘객관적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지영. 2002. “아시아 정보화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2002. 5).
- 김영진. 2000. “중국의 비공식 노동운동: 인적·조직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 회보』. 제34집 제2호 (여름).
- 박두복. 2002. “중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중국공산당의 성격변화 전망”. 『KIEP 세계경제』. 2002. 8.
- 유재섭. 1999. “중국사회의 정보화와 중국정부의 정책”. 『연세사회과학연구』. 제5

권 (가을).

윤영민. 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동률. 2001. “중국민족주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제3호.

이현우. 2001. “인터넷투표와 대표성의 문제: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당 예비선거.”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3호(가을).

정연정. 2000. “미국시민이익집단 활동과 인터넷 이용”.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4호 (겨울).

정재호. 2000. “인터넷과 중국정치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출판.

정재호. 2001. “과론공, 인터넷과 중국내부통제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가을).

정해용·박재욱. 2001. “시장체제하의 중국의 도시통치와 민주화: 上海市의 사례”, 『국제정치논총』. 제41집 제1호.

Anthony Giddens,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박찬욱 역. 『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1999).

Jack Linchuan Qiu, (1999/2000). “Virtual Censorship in China: Keeping the gates between the cyberspac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 Policy*. 1999/2000.No.4(winter) (http://www.ijclp.org/4_2000/index.html).

Junhua Zhang, 2001. "China's "Government Online" and Attempts to Gain Technical Legitimacy". *ASIEN*. (July) 80,S. (<http://web.syr.edu/~ztan/main.html>).

Lokman Tsui, 2001. "Internet in China: Big Mama is watching You"(MA Thesis). July. Chinese Languages & Cultures University of Leiden. (<http://web.syr.edu/~ztan/main.html>).

Martin Wolf, 2001. "Will the Nation-State Survive Globalization?." *Foreign Affairs*. Vol. 80. No. 1. (January-February).

Nina Hachigian, 2001. "China's Cyber-Strategy". *Foreign Affairs*. Vol. 80.

No. 2 (March-April).

Peter Nolan, 2001. *China and the Global Economy* (이남주 감수, 임정재 역. 『중국과 세계경제』. 서울: 함께읽는책. 2002).

Ronald J. Deibert, 1998. "Virtual Resources: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Resources on the Web".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1 (Winter).

Samuel P. Huntington,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Shanthi Kalathil and Taylor C. Boas, 2001 "The Internet and State Control in Authoritarian Regimes: China, Cuba, and Counterrevolution". No. 21 (July). Information Revolution and World Politics Projects, Carnegie Endowment(<http://www.ceip.org/files/publications/wp21.asp>).

Thomas L. Friedman, 2000.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First Anchor Books Edition, (April).

William J. Drake, Shanthi Kalathil and Taylor C. Boas, 2000. "Dictatorships in the Digital Age: Some Considerations on the Internet in China and Cuba," (October).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www.cisp.org/imp/october_2000/10_00drake.htm).

『Business Week』 .

『월간 아태지역동향』 .

『국가정보원(<http://www.nis.go.kr/>)』 .

『中國 인터넷 情報센터(CNNIC)(<http://www.cnnic.net.cn/develst/2002-7e/5.shtml>)』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국민일보(<http://www.kukminilbo.co.kr/>)』 .

『대한매일(<http://www.kdaily.com/news/>)』 .

『디지털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

『중앙일보(<http://www.joins.com/>)』 .

『세계일보(<http://www.segyetimes.co.kr/>)』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

『한국닷컴(<http://www.hankooki.com/>)』 .

『임수근중국인터넷비즈니스백과사전(http://www.ssoft.co.kr/ChinaInternet/ChinaInternet1_2.htm)』 .

『임수근중국인터넷비즈니스백과사전(http://www.ssoft.co.kr/ChinaInternet/ChinaInternet1_3.htm)』 .

<http://webnews.lycos.co.kr/detail.asp?no=17224>.